

사상체질진단기준(외모 심성 병증)의 중요도에 대한 연구

김영우* · 이의주** · 최선미*** · 정성일* · 이영옥* · 조훈석* · 김종원*

Abstract

The Study About The QSCC II For The Diagnosis Of Sasang Constitution (Around The Analysis of subjects)

Kim Young-Woo* · Lee Eui-Ju** · Choi Sun-Mi*** · Jung Sung-Il* · Lee Young-Ock* · Jo Hun-Seok* · Kim Jong-Won*

*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
**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Purpose :

This study had focused on evaluating the QSCC II for the elevating accuracy and the designing new Questionnaire.

Methods :

QSCC II was administered to 1051 patients who had been treated in the Dong Eui Oriental Medical Hospital and Kyung Hee Oriental Medical Hospital during 19 months from sept. 2000 to mar. 2002. We analyzed all subjects of the QSCC II.

Result :

1. In the analysis with all subjects of the QSCC II,
 - 1-1. 75 subjects had a significance between the Sasang Constitution groups.
 - 1-2. In each Sasang Constitution group, we was able to select some significant subjects. I had selected 34 subjects in the Taeyang scale, 33 subjects in the Soyang scale, 28 subjects in the Taeum scale, and 23 subjects in the Soeum scale.
 - 1-3. When I applied the new intensifying value and calculation, the diagnostic discrimination abilities of the QSCC II was 61.8% about Taeyangin, 55.9% about Soyangin, 63.8% about Taeumin, 63.6% about Soeumin, and total average was 61.8%.

* 동의대학교 사상체질과 ** 경희대학교 사상체질과 *** 한국한의학연구원
교신저자: 김종원 주소)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2동 산 45-1 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051-850-8641
E-Mail) jwonkim@demc.or.kr

I. 緒 論

東武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¹⁾에서 인간이 性情의 편차에 의해서 臟腑의 大小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病證 및 治療方法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四象體質醫學을 창시하였다²⁾.

四象醫學은 체질이 정확하게 진단되면 그에 따른 치료 및 양생법을 적용하여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 환자관리 및 치료에 대단히 효과적인 의학이다. 그러나, 사상체질을 진단하는데는 실제 임상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체질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³⁻²¹⁾

이러한 연구 중에서 최근에는 設問紙를 이용한 체질의 진단 객관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된 설문지는 주로 四象辨證內容 設問調査紙(I)²⁶⁾,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 I)²²⁻²³⁾,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24-25, 27-28)}의 3가지 종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설문지를 이용한 체질진단 방법은 체질진단 정확률이 비교적 높지 않고, 태양인 체질을 변별할 수 없다는 점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²⁷⁻²⁸⁾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 변증론에서 체질을 진단하는 기준으로 體刑氣像, 容貌詞氣, 性質才幹, 病證藥理^{1, 29-32)}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체질을 진단하는 기준이 실제 임상에서 비교적 어떠한 체질경향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각각의 기준이 다른 체질적 경향성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 체질진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까지는 체질진단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1, 2)}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준 중에서 어떠한 기준이 임상적으로 체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더욱 중요한 요인인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저자는 현재 사용중인 사상체질진단

설문지인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의 문항 중에서 〈동의수세보원〉 변증론의 내용을 중심으로 外貌 心性 病證에 해당하는 설문 85문항을 선택하여 체질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체질진단기준의 중요도에 대하여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 이를 발표하고자 한다.

II. 研 究

1. 研究設計

本 研究는 非實驗的 研究(non-experimental design)로 四象人 體質診斷의 客觀化를 위한 설문조사의 比較檢證 研究이다.

2. QSCC II의 概要

QSCC II는 金³³⁾의 임상심리학과와 정신 신경과에서 심리분석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설문조사방식을 응용하여 제작한 QSCC I을 바탕으로 개정된 것으로, 신체적 요소 8문항과 심성적 요소 80문항, 체질병증과 체질소증에 관한 24문항, 동기왜곡 9문항 등의 총 1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³⁹⁾.

3. 研究對象 및 資料收集方法

경희대학교 강남경희한방병원과 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로서, 체질진단은 사상체질전문의를 의하여 진단되었고, 최소한 4주이상의 사상체질 처방을 사용한 후 주 증상이 전반적으로 호전되어 체질이 확인된 환자 10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QSCC II로 태양인 집단을 진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하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어 태양인 자료를 수집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34명의 태양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단, 태양인 환자는 이⁴⁰⁾의 태양인 진단지표를 참고로 하여 선별하였다.

4. 研究方法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研究를 進行하였다.

東醫壽世保元 原文에서 제시된 外貌, 心性, 體質病症 등의 辨證內容과 일치하는 설문문항 85문항을 선출하고 이를 體質變數問項으로 설정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설정된 體質變數 전체문항의 각 체질에 따른 응답율과, 각 체질별 외모, 심성, 병증 문항의 각 체질에 따른 응답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體質變數問項과 각 體質範疇別 變數問項들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2) 체질변수문항을 위주로 문항의 內的合致度를 검사하여 각 체질과 3대범주에 있어서 체질변수문항별 신뢰도를 조사하여 체질진단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문항을 분석하였다.

3) 각 체질별로 外貌, 心性, 病症의 3대범주 및 각 범주 내에서의 항목별 중요도를 검사하여 각 체질 내에서 체질진단에 있어 척도가 되는 항목을 분석하였다.

5. 資料 分析 方法

QSCCⅡ 문항의 體質變數問項을 설정하고 이에 대하여 체질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변수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체질변수문항을 설정하여 각 체질변수항목과 체질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QSCCⅡ의 문항 신뢰도 검사를 위하여 문항 내적합치도 검사인 Cronbach α검사를 실시하였다. 각 문항 및 외모, 심성, 병증의 3범주에 있어서 체질진단의 중요도를 살피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結果의 통계처리는 통계처리 Package인 SAS/pc+와 SPSS Window 8.0을 사용하였으며, P값이 최소 0.05이하의 값을 보이는 경우 有意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Ⅲ. 結 果

1. 研究 對象者의 一般의 特性

본 연구에 포함된 사례들의 체질별 남녀분

포(Table 1), 체질에 따른 연령대(Table 2), 체질에 따른 나이·신장·체중별 특징(Table 3)은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조사 대상자 총 1051명 중 남자는 448명(46.4%)이고 여자가 558명(53.1%), 무응답이 5명이었다. 少陽人으로 진단된 자는 254명(24.17%), 少陰人으로 진단된 자는 374명(35.59%), 太陰人으로 진단된 자는 389명(37.01%), 太陽人으로 진단된 자는 34명(3.24%)이었다. 특히 체중에 있어서 太陰人의 평균체중(66.96kg)이 다른 체질에 비하여 유의하게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Table 1. 성별 체질별 분류표

체 질	분석 대상	성 별			수집인원
		남	여	무응답	
太陽人	34명	14	20	0	34명
少陽人	254명	130	122	2	254명
太陰人	389명	156	231	2	389명
少陰人	374명	188	185	1	374명
총	1051명	488	558	5	1051명

Table 2. 연령대와 체질

		체 질				Total	
		태 양	소 양	태 음	소 음		
연 령 대	10대 이하	Count	3	11	29	30	73
		%	8.8%	4.3%	7.5%	8.1%	7.0%
	20대	Count	7	41	79	87	214
		%	20.6%	16.2%	20.4%	23.5%	20.5%
	30대	Count	8	62	85	81	236
		%	23.5%	24.5%	21.9%	21.8%	22.6%
	40대	Count	6	51	78	84	219
		%	17.6%	20.2%	20.1%	22.6%	20.9%
	50대	Count	7	48	70	49	174
		%	20.6%	19.0%	18.0%	13.2%	16.6%
	60대	Count	3	28	38	29	98
		%	8.8%	11.1%	9.8%	7.8%	9.4%
	70대 이상	Count		12	9	11	32
		%		4.7%	2.3%	3.0%	3.1%
	Total	Count	34	253	388	371	1046
		%	100.0%	100.0%	100.0%	100.0%	100.0%

기타 무응답자 5명

Table 3. 체질과 신장·체중

		신장(cm)	몸무게(kg)
太陽人	Mean	162.79	56.12
	N	34	33
	Std. Deviation	7.24	7.62
少陽人	Mean	163.88	59.23
	N	249	250
	Std. Deviation	8.30	8.91
太陰人	Mean	164.31	66.96
	N	377	380
	Std. Deviation	8.07	10.25
少陰人	Mean	163.73	56.71
	N	367	366
	Std. Deviation	12.95	10.83
Total	Mean	163.95	61.09
	N	1027	1029
	Std. Deviation	10.11	11.07

2. 體質變數問項分析

동의수세보원 원문상 외모, 심성, 체질병증 등의 변증내용과 일치하는 설문문항을 체질변수문항으로 설정하였는데 태양인 19문항(외모 6문항, 심성 10문항, 병증 3문항)과 소양인 19문항(외모 8문항, 심성 9문항, 병증 2문항), 태음인 23문항(외모 8문항, 심성 9문항, 병증 6문항), 소음인 24문항(외모 7문항, 심성 12문항, 병증 5문항) 등 총 85문항이었다(Table 4).

Table 4. 체질변수항목

범 주	태양문항	소양인문항	태음인문항	소음인문항	계
외모	체형기상 1-①, 2-③, 3-①, 4-①	1-②, 2-②, 3-①, 4-②, 5-③, 6-③	1-①, 2-①, 3-②, 4-③, 5-①, 6-①	1-③, 2-③, 3-②, 4-④, 5-②	21문항
	용모사기 9-④, 12-①	12-②, 9-③	12-③, 9-①	12-④, 9-②	8문항
심성	성질제간 17, 34, 18	19, 31, 20	21, 22	23, 33, 24	11문항
	항심 48	49	50, 88	51, 59, 89	7문항
	성격 15-①, 61	15-②	15-③	15-④, 101	6문항
	심욕 74, 78, 92, 97	75, 79, 93, 98	76, 80, 94, 99	77, 81, 95, 100	16문항
병증	완실무병 108	109	10-①, 110	111	5문항
	대병			10-②, 120	2문항
	특이병증 102, 113	104	103	105	5문항
	소증		119, 118, 117	112	4문항
계	19문항	19문항	23문항	24문항	85문항

1) 체질변수별 문항응답율에 따른 유의성
체질변수문항을 위주로 대상자들의 설문응답빈도의 평균치를 살펴보고 각체질변수항목과 체질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유의성을 살펴보았다(Table 5~8).

(1) 전체평균에 따른 유의성

Table 5. 전체평균에 따른 유의성

sasang	P-value
태양변수	<.0001
소양변수	<.0001
태음변수	<.0001
소음변수	<.0001

(2) 카테고리별 평균에 따른 유의성

Table 6. 외모변수

sasang	P-value
太陽	0.0078
少陽	<.0001
太陰	<.0001
少陰	<.0001

Table 7. 심성변수

sasang	P-value
太陽	<.0001
少陽	<.0001
太陰	<.0001
少陰	<.0001

Table 8. 병증변수

sasang	P-value
太陽	0.0748
少陽	0.7744
太陰	<.0001
少陰	<.0001

2) 각 體質變數問項의 신뢰도 검사

각 체질변수문항의 신뢰도를 검사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체질변수 내에서의 중요도를 살펴 보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상기 결과를 토대로 체질별 및 외모, 심성, 병증 등의 범주에 있어서 체질변수문항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Table 9. 체질별 각 변수의 신뢰도(중요도)

			문항	전체 순위	3카테고리 내 순위	소카테고리 내 순위
태양인	외모	체형기상	1-①	탈락	탈락	탈락
			2-③	탈락	탈락	탈락
			3-①	14	4	2
			4-①	15	3	1
		용모사기	9-④	탈락	2	
			12-①	4	1	
	심성	성질계간	17	2	2	2
			34	1	1	1
			18	8	5	3
			48	7	6	
		성격	15-①	6	4	
			61	3	3	
74			12	탈락	2	
78			5	7	3	
심욕	92	9	8	1		
	97	10	탈락	탈락		
	병증	완실무병	108	11	탈락	
		대병				
특이병증		102	탈락	2		
		113	13	1		
소증						

			문항	전체 순위	3카테고리 내 순위	소카테고리 내 순위
소양인	외모	체형기상	1-②	16	4	3
			2-②	10	2	1
			3-①	탈락	6	탈락
			4-②	탈락	5	5
			5-③	6	1	2
			6-③	8	3	4
	용모사기	12-②	5	탈락		
		9-③	14	탈락		
	심성	성질계간	19	2	1	1
			31	1	2	2
			20	7	5	탈락
			49	12	4	
성격		15-②	13	6		
		75	9	8	2	
		79	3	3	3	
		93	탈락	탈락	탈락	
심욕	98	4	7	1		
	병증	완실무병	109	15		
		대병				
		특이병증	104	11		
소증						
태음인	외모	체형기상	1-①	3	3	3
			2-①	1	1	1
			3-②	탈락	탈락	탈락
			4-③	탈락	탈락	탈락
			5-①	2	2	2
			6-①	4	4	4
	용모사기	12-③	탈락	탈락		
		9-①	15	5		
	심성	성질계간	21	탈락	탈락	
			22	16	5	
			50	9	2	
			88	6	1	
성격		15-③	탈락	6		
		76	13	3	1	
		80	7	7	4	
		94	12	4	2	
심욕	99	11	탈락	3		
	병증	완실무병	10-①	18	탈락	
		110	14	5		
		대병				
특이병증		103	17	4		
	119	10	2	3		
소증	118	8	1	1		
	117	5	3	2		

† 문항내적합치도 검사의 일환으로, 검사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 하나하나를 독립된 한 개의 검사도구로 간주하여 각 문항에 대한 반응간의 합치 정도와 일치 정도, 또는 동질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문항내적합치도는 피험자가 각 문항에 반응하는 일관성, 합치성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이 방법은 한 번의 검사로서 간단히 신뢰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신뢰도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문항내적합치도는 여러 가지 공식으로 추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Kuder와 Richardson이 고안한 KR-20, KR-21, Cronbach가 고안한 Cronbach α 가 많이 이용된다.

			전체 순위	3카테고리 내 순위	소카테고리 내 순위
외모	체형기상	1-③	15	3	3
		2-③	10	2	2
3-②		21	탈락	탈락	
4-④		20	4	4	
5-②		8	1	1	
용모사기	12-④	19	탈락		
		9-②	탈락		
소음인	심성	성질재간	23	12	8
			33	11	9
			24	14	6
		항심	51	1	1
			59	4	4
	89	2	2		
	성격	15-④	탈락	탈락	
		101	3	5	
		77	13	7	
	심욕	81	17	10	
95		5	3		
100		탈락	탈락		
병증	완실무병	111	7	2	
		10-②	9	3	
		120	16	1	
		105	18	5	
112	6	4			

- ① 소양전체
: 심성 > 외모 > 병증
- ② 소양 외모 심성 병증 3개 카테고리
외모 : 체형기상 > 용모사기
심성 : 심욕 > 성질재간 > 항심 = 성격
병증 : 완실무병 = 특이병증
- (3) 태음인 설문지의 중요도
 - ① 태음전체
: 심성 > 외모 > 병증
 - ② 태음 외모 심성 병증 3개 카테고리
외모 : 체형기상 > 용모사기
심성 : 심욕 > 성질재간 = 항심 > 성격
병증 : 소증 > 완실무병 > 특이병증
- (4) 소음인 설문지의 중요도
 - ① 소음전체
: 심성 > 외모 > 병증
 - ② 소음 외모 심성 병증 3개 카테고리
외모 : 체형기상 > 용모사기
심성 : 심욕 > 성질재간 = 항심 > 성격
병증 : 대병 > 완실무병 = 특이병증 = 소증

3) 體質變數項目의 중요도

회귀분석을 통해 회귀계수 크기 순서를 살펴볼 때, 회귀계수 값이 클수록 그 체질 값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이로써 각 체질 내에서 체질진단에 있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태양인 설문지의 중요도

- ① 태양전체
: 심성 > 외모 > 병증
- ② 태양 외모 심성 병증 3개 카테고리
외모 : 체형기상 > 용모사기
심성 : 심욕 > 성질재간 > 성격 > 항심
병증 : 특이병증 > 완실무병

(2) 소양인 설문지의 중요도

IV. 考 察

사상체질 진단의 외모, 심성, 병증의 내용 중 그 중요도를 연구하기 위해 현재 사용중인 사상체질진단 설문지인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의 문항 중에서 <동의수세보원> 변증론의 내용을 중심으로 외모, 심성, 병증에 해당하는 설문 85문항을 선택하여 체질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체질진단기준의 중요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체질분포는 太陽人이 3.24%, 少陽人이 24.17%, 太陰人이 37.01%, 少陰人이 35.59%이고, 이중에 男子는 46.4%이고 女子가 53.1%이다. 특히 체중에 있어서 태음인은 다른 체질

* 소카테고리 내에서 이 부분은 (0,1) 데이터이기 때문에 크기 비교가 되지 않고 모두 같게 나온다. 이는 Cronbach의 결과를 가지고 그 중요도를 해석한다.

에 비하여 유의하게 체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3). 체질분포에 있어서는 <東醫壽世保元>²⁾에서 동무공이 체질별로 제시한 비율과 비교해 볼 때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동의수세보원 원문상 외모, 심성, 체질병증 등의 변증내용과 일치하는 설문 85문항을 체질변수문항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주로 대상자들의 설문응답빈도분석을 통하여 각 체질변수항목과 체질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유의성을 살펴보았다(Table 4). 체질변수문항을 살펴보면 전체 75문항 중 태음소음문항(47문항)이 비교적 많았으며, 카테고리별로 보면 심성문항(40문항)이 가장 많고 병증문항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체질감별의 척도로는 체형기상, 용모사기, 성질재간, 병증약리 등의 4대범주가 있고 이를 고루 관찰하여야 정확한 체질진단을 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QSCCⅡ는 심성위주로 문항이 작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체형기상 용모사기 병증약리에 관한 척도가 매우 부족하며 또한 수세보원의 체질변증에 관한 원문내용과 관계가 없는 항목이 많았다. 이는 설문지 자체가 기존의 심리검사에 입각하여 체질심성에 중점을 두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각 체질별 전체변수의 응답율은 모두 각 체질마다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Table 5). 하지만 외모, 심성, 병증 등의 카테고리 내 응답율로 살펴보면(Table 6~8), 태양인 문항 중에서 외모문항의 응답율은 오히려 태음인에게서 가장 높고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심성문항은 태양인이 가장 높고 유의하게 나타났고, 병증문항은 태양인이 가장 높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소양인 외모문항과 심성문항은 소양인이 가장 높고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병증문항은 오히려 태양인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유의성은 없었다.

태음인 외모문항과 병증문항은 태음인이 가장 높게 응답하고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심성문항은 소음인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유의성이 있었다.

소음인 외모, 심성, 병증문항은 모두 소음인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유의성이 있었다. 위의 결과로 볼 때 QSCCⅡ는 소음인에게 있어서는 문항분포가 양호하다고 하겠으나, 태양인 외모와 병증, 소양인 병증, 태음인 심성문항은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QSCCⅡ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체질변수문항의 내적 신뢰도를 검사하였다. 태양변수 전체문항에서의 신뢰도는 34>17>61>12-①>78>15-①>48>18>92>97>108>74>113>3-①>4-① 순으로 나타났으며, 9-④, 102, 1-①, 2-③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변수 중 신뢰도에서는 12-①>9-④>4-①>3-①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①, 2-③은 신뢰도가 떨어졌다. 심성문항 중 신뢰도에서는 34>17>61>15-①>18>48>78>9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74, 97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증문항 중 신뢰도에서는 113>10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08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양변수 전체문항 중 신뢰도에서는 31>19>79>98>12-②>5-③>20>6-③>75>2-②>104>49>15-②>9-③>109>1-②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3-①, 93, 4-②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문항 중 신뢰도에서는 5-③>2-②>6-③>1-②>4-②>3-①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2-②, 9-③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성문항 중 신뢰도에서는 19>31>79>49>20>15-②>98>7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93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증문항 중 신뢰도에서는 109>104의 순으로 나타났다.

태음변수 전체문항 중 신뢰도에서는 2-①>

5-①>1-①>6-①>117>88>80>118>50>119>99>94>76>110>9-①>22>103>10-①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1, 15-③, 12-③, 3-②, 4-③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문항 중 신뢰도에서는 2-①>5-①>1-①>6-①>9-①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4-③, 12-③, 3-②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성문항 중 신뢰도에서는 88>50>76>94>22>15-③>8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1, 99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증문항 중 신뢰도에서는 118>119>117>103>11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0-①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변수 전체문항 중 신뢰도에서는 51>89>101>59>95>112>111>5-②>10-②>2-③>33>23>77>24>1-③>120>81>105>12-④>4-④>3-②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9-②, 15-④, 100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문항 중 신뢰도에서는 5-②>2-③>1-③>4-④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3-②, 12-④, 9-②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성문항 중 신뢰도에서는 51>89>95>59>101>24>77>23>33>8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5-④, 100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증문항 중 신뢰도에서는 120>111>10-②>112>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네 체질의 전체적인 신뢰도에 있어서, 태양·소양·소음인은 심성항목에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고, 태음인은 오히려 외모항목에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한 회귀계수의 비교로 각 체질진단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를 분석하여 보았을 때, 네 체질모두 심성)외모)병증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나는데 이는 체질진단에 있어 심성이 위주가 된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위에서도 살펴보았듯 설문자체가 심성위주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나타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 외모에 있어서는 네 체질 모두 체형기상)용모사기의 순으로 중요

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심성에 있어서는 심욕)성질재간)항심과 성격의 순으로, 병증에 있어서는 완실무병, 대병, 특이병증, 소증에 있어 태양인은 특이병증, 태음인은 소증, 소음인은 대병이 중요하게 나타났으나, 변수문항이 많은 범주일수록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우선적으로 심성에 대한 척도 수준에 이르기까지 체형기상 용모사기 병증약리의 각 범주에 따른 고른 문항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V. 結 論

사상체질 진단의 외모, 심성, 변증의 내용 중 그 중요도를 연구하기 위해 경희대학교 강남경희한방병원과 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 중 체질진단과 치료를 받고 체질이 확인된 105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동의수세보원 원문을 위주로 설정한 체질 변수문항 85문항에 있어서,

1. 체질변수문항은 태음소음문항과 심성문항이 많았고, 소양태양문항과 외모와 병증문항이 매우 적었으며, 소음인을 제외한 나머지 체질변수문항의 체질응답율에는 유의성이 적었다.

2. 각 체질변수문항의 내적 신뢰도 검사에서 태양 소양 소음인은 심성항목에 있어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태음인은 외모항목에 있어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3. 체질변수문항의 신뢰도 검사에서 네 체질 모두 심성)외모)병증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이는 체질진단에 있어 심성이 위주가 된다고도 볼 수도 있고, 설문자체가 심성 위주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나타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어, 추후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사려된다.

참 고 문 헌

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 : 행림출판, 1986 : 137-142.
2. 사상의학
3. 梁基相. 유형체질감별의 면역혈청학적 연구. 경희한의대논문집. 1983 ; 6(1) : 33-45.
4. 허만희 외3인. 四象人의 形態學的 圖式化에 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1992 ; 4(1) : 107-148.
5. 고병희 외8인. 사상체질별 두면부의 형태학적 특징. 사상체질의학회지. 1996 ; 8(1) : 86-101.
6. 김달래 외2명. 성문분석법에 의한 사상체질 진단의 객관화연구(1).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 ; 10(1) : 65-80.
7. 박성식 외8인. 사상체질유형과 지문, 손바닥문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 ; 10(1) : 81-100.
8. 이수경 외3인. 신체계측 및 검사소견을 중심으로 한 사상인의 특징에 관한 분석. 사상체질의학회지. 1996 ; 8(1) : 349-369.
9. 이의주 외3인. 한국인 신체분절에 관한 四象醫學적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 ; 10(1) : 143-160.
10.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사상인의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 ; 10(2) : 181-220.
11. 홍석철 외7인. 체간부의 사상체질별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 ; 10(1) : 101-142.
12. 홍석철 외2인. 사상체질별 상안부의 형태학적인 특징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 ; 10(1) : 161-170.
13. 홍석철 외5명. 사상체질진단의 객관화를 위한 형태학적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 ; 10(1) : 171-180.
14. 김종원. 사상체질과 혈중Prostaglandin E2치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7 ; 9(2) : 245-262.
15. 조황성 외7인. 체질진단의 객관화에 관한 연구-생화학적 분석자료를 중심으로-. 사상체질의학회지. 1997 ; 9(2) : 147-162.
16. 조동욱 외8인. Amp-FLP을 이용한 사상체질의 유전적 분석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7 ; 9(2) : 163-174.
17. 조동욱 외3인. 유전자지문법을 이용한 사상체질의 유전적 분석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6 ; 8(2) : 151-160.
18. 최승훈, 임용빈, 이준우 외2인. 사상체질유형과 ACE(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유전자 Type(polymorphism)과의 상관관계.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 ; 10(2) : 283-290.
19. 김정렬, 김달래. 계측기를 이용한 O-Ring Test법의 검증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5 ; 7(1) : 69-102.
20. 김종원 외2인. EAV의 측정치와 사상체질유형 및 증풍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5 ; 7(2) : 59-88.
21. 성삼재 외2명. 사상체질유형별 양도락 측정치에 대한 고찰. 경희한의대논문집. 1997 ; 20(1) : 1-33.
22. 김선호,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의 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3 ; 5(1) : 67-85.
23. 이정찬,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의 준거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3 ; 5(1) : 87-104.
24. 김선호 외2인.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의 표준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6 ; 8(1) : 187-246.
25. 이정찬 외2인.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 II)의 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6 ; 8(1) : 247-294.
26. 이의주 외 2인. 사상변증내용 설문조사지 (I)의 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5 ; 7(2) : 89-100.
27. 김태연 외 4인.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의 Upgrade 연구(I).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 ; 15(1) : 28-37.
28. 이상규 외 4인.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의 Upgrade 연구(II).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 ; 15(1) : 40-48.
29. 李泰浩. 實際的 東醫四象診療의 秘訣. 서울 : 행림서원. 1961 : 31-47.
30. 宋一炳. 알기쉬운 四象醫學. 서울 : 사상사. 1993 : 50-89.
31.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변증에 관한 소고. 대한한의학회지. 1985 ; 6(1) : 40-47.
32.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변증방법론 연구(제2보). 대한한의학회지. 1987 ; 8(1) : 146-160.
33. 박은경 외 2인. 의사결정나무법을 이용한 체질진단에 관한 소고.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 ; 13(2) : 144-155.